

투데이 칼럼

2022년 북한 최악의 1년

지난 2022년 한 해 북한은 위기의 1년이었다. 계속되는 대북 제재와 식량난, 여기에 5월 12일 코로나 확진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닝 달 만에 최대 비상 방역전에서 승리했다면서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고 사회주의 통제 방역을 선택했다.

2022년 5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인정한 북한의 대응은 봉쇄와 통제 중심의 방역 그리고 확대된 재난방송이다. 통상 오후 3시에 시작하던 방송을 오전 9시부터 시작했다.

코로나19 관련 각종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보내기도 했다. 코로나 비상 상황을 내무 결속의 계기로 활용하기도 했다. 인민군의 방역 전선 투입 등 미담 사제를 전하며 방송에선 방역 영웅을 만드는 보도가 이어졌다.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또 다른 전염병까지 발생하자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당 간부들이 상비약품을 기부하기도 했다.

북중 화물 열차를 통해서 각종 백신이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었다. 지난 2022년 11월에 열차를 타고 북한의 입산부나 아동을 위한 110만 명분의 결핵 그리고 소아비백신이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북한이 2020년 1월에 국경을 봉쇄한 이후 처음으로 육로를 통해서 UN 산하기구의 지원 물자가 들어



정복규  
논설위원

간 첫 사례다. 북한의 시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지만 중국 등 국경을 통해서 수입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

수입에 의존하던 식품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코로나19뿐 아니라 2022년 북한에 닥친 위기가 또 있었다. 이상 기후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도 발생했다. 4월과 5월 북한에서는 모내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올해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도 안 났을 정도로 가뭄에 시달렸다. 가뭄이 끝나자마자 장마 피해를 걱정해야 했다.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황해도와 평안도 등에 호우가 집중돼 피해가 잇따랐다.

또 추수와 수확 철을 앞두고는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올해처럼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돈 좀 있는 사

람들이 보통 1년이나 6개월 정도의 식량을 한꺼번에 구입해서 창고에다 쌓아놓고 소비를 한다.

일반 주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간다. 그러나 지금처럼 시장이 위축되고 소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장마당 자체가 작동이 잘 안 된다.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는 주식이 옥수수다. 최근에 와서 밀가루 음식 전시회를 열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밀가루로 주식을 바꾸면서 전반적으로 식생활 문화도 바꾸고 식생활 수준도 개선하고 식량 문제도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밀 보리는 이모작을 통해서 전반적인 식량을 늘리려는 의도가 있다. 그런데 이모작을 하는 것은 좋은 데 토양의 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밀농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과 기계 등도 부족하다. 북한 당국

도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2016년부터 20년까지 1차가 있었다. 올해는 2차 5개년 전략의 2년 차다.

북한도 굉장히 성과를 내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군수공장에서 만든 농기계 한 5500대 정도를 황해남도 곡창지대에 전달했다.

자력갱생으로 어떻게든 이 위기를 타개해 보겠다는 당국의 의지는 강력하게 보인다. 그러나 지금 식량난은 열심히 농사를 안 지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라든가 기후위기와 같이 국제적으로 다 같이 대응해야만 가능한 문제 때문에 식량난이 있는 것이다. 자력갱생으로 극복하는 건 한계가 있다.

북한에서는 지금 상황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상당히 달레마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자연재해와 식량난 코로나19 위기까지 겪었던 북한은 위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선보았다.

지난해 10월 초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기 대응법과 수매법 등이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보건 위기나 자연재해 같은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세우고 인민 경제적 수호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도내 건설사 협박한 전 노조 간부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건설사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전 노조 간부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돈을 안 주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도심 어느 아파트 밀집 지역은 7년 전부터 이곳에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런데 건설사들은 그동안 노동조합이 일감 확보와 노조원 모집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공사를 방해했다고 말한다.

노조 인원들이 와서 입구를 틀어막고 차량 등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한다. 다른 지역 건설사 또한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돈을 안 썼을 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시위도 하고 신고도 했다. 아직도 현장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경찰은 아파트를 짓는 공사 현장 등에서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전 노동조합 간부 등 2명을 구속했다. 2019년 3월부터 1년여 간 전주와 익산, 정읍 등 5곳에서 4천 2백여단원을 쫓긴 혐의다.

이들은 건설사에 채용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며 집회를 열겠다고나 민원을 냈다고 압박했다. 심지어 노조 사무실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현장에서 이뤄지면 공사 기일이 늦춰지게 된다. 결국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구속된 전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공범이 있는지, 또 추가 범죄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7월까지 공사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건설사를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간 것은 죄질이 결코 작지 않다. 철저히 수사하고 첩보를 내리는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후폭풍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의 후폭풍을 막기 위해 예금자 구제 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장 한도에 상관없이 고객들이 맡긴 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일단 급한 불은 끄겠다고 보인다. 사실 당장은 그렇다. 갑작스럽게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의 주요 고객은 신생 기술 기업, 즉 스타트업들이다.

이 은행 예금의 95%가 비보호 예금으로 추산되면서 기술 기업들의 연세 도산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예금 전액 보호 조치로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는 예금자 보호가 초점이라며 은행을 살리기 위한 '구제금융'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연세 파산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암호 화폐 전문은행인 시그니처 은행도 폐쇄됐다. 현재 미국 언론을 통해 상당수 중소

규모 은행들의 파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가능하기가 쉽지 않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의 직접적 원인이, 연준의 강력 긴축으로 단기간 이뤄진 금리 인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보유 채권값이 떨어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 것이다.

채권값 하락으로 미국 전체 은행이 안고 있는 잠재적 손실 규모는 한국 돈, 806조 원으로 추산된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위기 전이 없을 거라던 미국이 '예금 전액 보호조치'를 발표한 건 미국 정부 역시 현 사태를 위협하게 보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개장 한 시간여를 앞두고 발표할 것도 세계 금융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기준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 사태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문

내고향 전복을 지속시키는 힘, 고향사랑기부제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1972년에 발표된 '고향역'이라는 노래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다. 이 노래의 작곡가 임종수씨는 중학교시절 익산 황등역에서 이리역으로 통학하였는데, 기차길옆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보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고향역'을 지었다고 한다. 당시에 돈을 벌기위해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힘겹게 일하던 근로자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고향은 어머니만큼과 같이 항상 돌아가고 싶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 고향의 현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인구감소, 교원화 문제는 점점 심화

되고 있고,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는 우리의 고향인 농업·농촌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같은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고향에 대한 관심, 즉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다. 이러한 관심이 모여 정책을 만들어 내고, 우리 아이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관심들이 모여 만들어낸 정책 중 하나가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담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한 사람 한 사람



김영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의 소중한 기부액은 소멸위험에 처해있는 농촌을 살릴 수 있고, 농축산물로 구성된 담례품 선택으로 농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업·농촌에 다양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우리 전북농협도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전북의 우수한 농축산물이 담례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17개가 선정되었고, 유튜브 및 전자북을 제작하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올해 20여회의 기부행사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K리그가 열리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2만여 입장객을 대상으로 전북 농축산물로 만든 담례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펼쳤다.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농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과 도민들의 관심으로 농생명 산업도시 전북은 다시금 우리에게 어머니만큼과 같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며, 내 고향 전복을 지속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복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